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늘 만나는 구원 성경: 누가복음 19장1-10절

Tag:

-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10)

예수님은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다.

구원이란 현재적인 사건이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다. 언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오늘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된 언행을 하게 된다. 복된 언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이 커켜이 쌓이게 되어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보험금 타듯이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하 믿음이라는게 보험과 같은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기 시작하면서 복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의 시초는 각각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영적인 감각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감각이 다를 수 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가 절실하고 그것이 감각이 되지만,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수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주 겨자씨 만한 변화라 할지라도,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 먼 훗날 만나게 되실 분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원은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먼 훗날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은 즉시 내게 그 구원 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그 증거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인 증거 또는 효과는 사람이 편안해진다.

놀랍게도 그러면 내가 그동안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of course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는다.

편안함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안을 느끼게된다.

편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 또한 크다.

우선 맘이 편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는데 좋고, 잠자리가 편하다. (이점이 가장 중요함.)

잠자리가 편하니 꿈이 편하다. 꿈이 편하니 잠을 자면 건강해진다.

뭔가 용서 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가 편해진다. 회개해도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흥가분할 거 같은 느낌을 받는다. 청산해야 하는 느낌도 받는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느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연민을 품고 계신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빚장이 풀어졌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주목하셨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은 네 집에서 하룻밤 보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 주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근하게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인식;consciousness; 서로 앎) 구원이다.

세상을 지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나를 친근히 여겨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삭개오는 부리나케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삭개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더 큰 감사가 없다. 더 큰 만족은 없다.

그는 기뻐서 자신의 포부를 예수님께 말씀 드렸다.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평범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원래 뼈뺀 성격은 없었던 거 같다.

그는 남 핑계 대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

그에게는 호기심이라는 단순하지만 건강한 마음이 있었다.

그에게는 적대감이나 비판의식은 없었던 거 같다.

왜냐면 그는 세리였다. 당시 점령군에게 순응적이었고, 아랫사람들도 잘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된 거 같지는 않다. 또는 그것을 극복했으리라.

아무튼 세리장까지 된 것 보니, 그는 매우 부지런히 일을 하는 스타일 인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잘 보이지 않자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다.

너무 평범한 사람은 귀찮아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으며,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들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다. (뽕나무든, 들무화과 나무든 크게 상관은 없다. 지역에 따라 품종들이 다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 졌으며,

약간 삐딱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 거리는 것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

상관없다고 느낀 것이다.

담대해졌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수군 거리는 것에 마음을 닫는다.

마음이 닫히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몇몇 사람들과만 접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근하게 하므로 평안을 찾고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 거리는 것이 개의치 않게 되었다.

담대해졌기 때문이다.

큰 사람일수록 적들이 많다. 그래도 큰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세상적으로는 큰 확신이 있는 자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는다.

담대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나 선뜻 말하지 못했던 포부를 밝혔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다들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들은 있지 않는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포부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포부를 실천하도록 도우신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기부는 참으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 물론 그 기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부여야 한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10)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